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5월 25일(금)

(음력 4월 11일)

Пятница

25 мая 2018 г.

№ 20(11678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23일(수) 사할린주내 163개 학교들에서 <마지막 종소리> 행사들이 펼쳐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동양김나지아에서는 올해 졸업반은 한 반이다. 졸업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종소리> 행사에서 동 학교 18명의 청년들은 선생님들과 부모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예식 기자 촬영)

졸업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종소리> 울려 퍼져

5월 23일(수) 사할린주내 163개 학교들에서 졸업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종소리> 행사들이 펼쳐졌다.

마지막 종소리는 약 2500명의 11학년 졸업생과 5000명의 9학년 학생들을 위해 울려 퍼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이번 1086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다.

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수상 대행과 나탈리아 무라쇼와 교육부장관은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김나지아를 찾아 졸업생들에게 축하하고 격려했다.

벨리크 수상대행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직업을 찾고 또는 계속 공부를 하여 성공하기를 기원한다."며 "사할린주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적용하고 미래의 계획과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무라쇼와 장관은 "너희들을 위한 마지막 종소리가 울렸다. 학

창시절 내내 항상 뒷받침해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이탈하지 않도록, 강하고 용감한 시민들로 자라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준 학부모님들과 교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제3김나지아와 제6중학교를 찾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지금 제 앞에는 그저 졸업생들이 아니라 미래의 의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등 수준 높은 전문가들이 서 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도시의 희망이다."라고 했다.

첫 국가단일수능시험은 5월 28일에 시작한다. 졸업생들은 지리학과 정보학 시험(선택과목)을 치르고 5월 30일은 전체 수학시험, 마지막 6월 20일에는 문학과 물리학 시험이 치러지고 6월 말에는 모든 학교마다 졸업식을 진행한다.

(본사기자)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학 학술회 개최

지난 18일(금)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제7회 국제한국학 <2018변화되는 세계 정세 속에 러시아와 코리아> 컨퍼런스가 동 대학 한국학연구센터의 주최 아래 진행되었다.

이에 모스크바대학교,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역연구소, 서울대학교, 한국의국외대학, 중국 길림대학, 서경대학교, 홍콩대학교, 극동연방대학교 내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한국, 홍콩, 중국, 프랑스, 인도 등 나라들을 대표하는 교수들과 연구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학술회는 4 섹션, <한반도의 현안 문제>, <역사와 문화>, <언어학과 문헌학>, <대학 내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물결'>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연구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대 외교 정책을 비롯해 극동연방구와 한국 간 협력 전망, 한국어 의식에서의 행복의 개념, 혼례복 색과 문양, 일본과 대한민국의 영화와 음악에서 문화 현상으로서의 위안부 등 주제로 발표·논의가 있었다.

이 학술회에 참가한 사할린 주향토박물관인 율리야 연구가는 1945년 8-9월 조선반도에서 붉은 군대 작전에 관련한 주제로 발표했다.

(배순신 기자)

단신

사할린주, 인도 아삼주와 협력협정 체결

5월 24-26일간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이 개최된다. 여기에 외국 정상들과 정부 지도자, 유명 경제활동가, 국제기구의 리더들, 대기업 지도부, 세계적 전문가, 국제미디어 대표들이 참가한다.

이번 포럼에서 사할린주는 9가지 협정을 체결할 예정인데 그중 하나는 인도 아삼주와 협력협정이다. 사할린 주는 아삼주와 무역, 투자, 교육, 과학 및 기술, 문화와 스포츠,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교류를 하기로 했다.

인도는 오래전부터 사할린주의 주요 해외 경제파트너 중 한 나라다. 인도의 국가기업 ONGC Videsh Limited는 <사할린-1>석유가스 프로젝트에 20%의 지분을 갖고 있고 2015년부터는 사할린의 석탄도 인도에 수출하고 있다.

2017년 동방경제포럼에서도 인도의 모디 나렌드라 총리는 사할린의 수산물 공급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인도 아삼 주와의 협력협정으로 사할린주와 인도 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할린주, 서울에서 투자설명회 개최

5월 29일-6월 2일간 한국에서 사할린주 투자설명회를 연다. 이를 위해 사할린주 경제개발부 알렉세이 우스펜스키 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업체 대표 등, 해당 정부 부서 관계자 등)이 서울을 방문한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2016년 9월 2일에 블라디보스톡 국제동방경제포럼에서 사할린주 정부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 간 체결된 양해각서 수행에 따라 이뤄진다.

주경제개발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투자설명회는 양국 간 관계진흥, 사할린 및 한국업체들 간 교류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방문기간 중 사할린 주의 수출 및 투자 잠재력에 대한 발표, B2B형식의 회의, 한국 기업체들 방문 등이 계획돼 있다.

사할린 주민, 2017년 주 예산 집행 공청회에 초대

5월 29일(화) 14시 사할린 주 정부 대강당에서 (콤포니스트치체스키 프로젝트, 39) 2017년에 이뤄진 주 예산 실행에 관한 보고가 있다.

공청회에는 사할린주 정부 관계자들이 발표하고 사할린 지역 주민들의 제안과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주정부 측이 전했다.

젊은 기업인을 위한 교육포럼 개최

6월 1일-3일 3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너는 기업인이다>국제청년사업가 교육포럼이 개최된다. 현재 포럼 참가신청서를 접수 중이며 주최 측에 따르면 포럼 참가자로 70명을 선정할 것이다. 이번 포럼에 한국, 중국, 일본 젊은이들도 참가하기로 했다. 젊은 사업가들은 주로 건설, 관광, 물류, 디자인, IT기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포럼의 일환으로 청년교육, 미팅, 활동교실, 상담, 원탁 모임,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고려신문

2018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동포의 이중 노스텔지어, 전문가들의 유익한 발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1일(월) 사할린인문기술대학(전 유즈노사할린스크경제법률정보대학)에서 <사할린 동포: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SSK 이주·사회통합법제체계연구단, 인하대학교 BK21+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단·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사할린인문기술대학, 사할린주한인회의 주최로, 한국연구재단,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사할린한인들’ 주제로 전문 연구자들이 전체 발표하는 학술회가 최근에 사할린에서 없었다.

사할린한인역사 연구로 잘 알려진 이곳 아나톨리 쿠진 박사(사할린철도대학 교수), 진 율리아 박사(사할린항토박물관 선임 연구원)는 이번에는 새로운 발표를 준비해왔다. 쿠진 교수는 <사할린 남부로 동원된 한인의 전후 법적 지위>, 진 율리아 박사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사할린 한인들의 운명>주제로 종전 후 한인 동포들의 국적 변경 사항(러시아어 발표문 다음 게재.)을 살펴보았다.

사할린을 처음 찾아온 영산대학교 최경옥 교수는 사할린 한인 법적 권리, 국적 문제를 5-6년을 연구하고 있다. 최 교수의 내용 깊은 이 연구는 사할린 한인들이 잘 이해하도록 해야 했다. 국적 관련 법적 사항의 설명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 일제 시절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었던 이들 또는 중국 등지로 갔거나 그 이전이라도 어

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야했던 이들이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로 사할린 - 현재까지 4대째 이어지고 있다-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법적 자취에 대해 정리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분석해보았다.

사할린 동포들은 다른 외국 국적의 동포들과는 달리, 역사상 징용의 피해자로 - 강제징용, 국교미수교, 외교 마찰 등- 그들이 돌아오려고 하여도 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한다. 이미 국적 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 나라 국민인데, 이러한 절차를 통과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 2013년의 신지침에서는 이를 위한 기간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과거에 이러한 기회를 놓친 동포들에게도 이 조항을 소급 적용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적회복의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지침으로 사위의 법률을 위반하는 행이며, 인권에 반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민보호라는 책무를 회피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최경옥 교수의 발표의 일부다.

이번 학술회에서 또 한 가지 새로운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사할린인문기술대학 국제 및 인노베이션 담당 부총장 김영순 교수는 러시아 고려인(사할린 한인 포함) 디아스포라의 사회학을 주제로 하여 발표했다. 그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지역의 고려인들에게 나타난 다양한 변

화를 문화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김영순 박사는 고려인 인구밀도와 연령대, 교육수준 및 한국어 교육의 영향 등에 관한 많은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해보았다. 김영순 박사에 따르면 러시아 전국의 한 핏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는 이유는 사할린 한인 출신들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거주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가 결론을 낸 것 중 하나는 "한국어 습득력이 현저히 낮아 전통 예술과 문화의 이해도를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않고 한국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앞으로의 민족정체성과 민족 디아스포라에 관한 여러 질문도 내세웠다.

인하대학교 김영순, 박봉수 교수들이 준비한 <사할린 재외 동포의 노스텔지아 연구>발표도 역시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발표를 한 김영순 교수와 박봉수 연구원은 몇 년간 인천 논현동 사할린 영주귀국자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들의 가족사, 사진, 일반 이야기를 통해 하는 연구다.

"본 연구에서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귀향과 역귀향 현상을 이중의 노스텔지어로 이해하고 이중의 노스텔지어가 갖는 현상과 의미에 대해 영주 귀국 이전과 영주 귀국 이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사할린에서 태어났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모님들이 살아 생전에 귀향을 꿈꾸어왔던 것처럼 귀향을 꿈꿨다. 사할린 한인들은 사할린에서 부모님의 조국과 고향인 한국을 그리워하고, 영주 귀국을 평생의 소원처럼 동경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그들의 태생지인 고향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이 태어난 곳,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야기로 들은 상상의 고향인 셈이다. 그들은 부모님이 희망했던 귀향을 실현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 영주귀국의 꿈을 이뤘지만 그들은 사할린의 남겨진 자식들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또 다른 귀향을 꿈꾼다."는 내용을 김 교수는 발표했다.

고향에 돌아오고 싶었던 어르신들은 영주귀국하여 이제는 사할린을 그리워 한다. 여기서 김영순 교수는 <이중 노스텔지어>란 표현을 썼다. 감동적이었다.

올 6월에 박봉수 연구원은 사할린 영주귀국자에 대한 책자들을 편찬할 예정이다. 기대가 된다.

이번 학술회 사회는 최윤철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소장(1 세션)과 배 워토리아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사장(2세션)이 맡았다. 이날 발언자들은 꽤 많은 질문도 받기 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번 대회가 재미있고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사할린과 한국 연구자들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으면 한다.

(본사기자)
(이예식 촬영)

이 모 저 모

'아동보호의 날' 기념을 즈음하여 사할린 자동차경주협회 회원들 '미소'사회재활센터 학생들을 위한 선물 수집

사할린 비영리 자동차경주클럽인 사할린 크라운클럽, 마크2그랜드클럽, 마이포레스트클럽, 사할린 힘머클럽, "테라노보드 65"의 대표들이 '아동보호의 날'을 즈음하여 자선행사를 펼친다. 대표들은 크라스노고르스크에 있는 <미소> 미성년 사회재활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은 아동들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공예재료 (고무찰흙, 사인펜, 공예용 오색 리본 등)와 발전적인 놀이 재료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달콤한 제과를 선물할 예정이다. 행사는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라>라는 표어 아래 진행된다. 문의 전화: : +7-924-880-40-39, +7-996-343-54-54.

5월15일부터 매일 20:00부터 21:00까지 사할린 주민들은 주중양도시 승리의 광장('알론키 츠벤토첵'가게 맞은 편)에서 '미소' 센터의 학생들을 위한 행사 준비에 참여할 수 있다. 자동차 경고등을 켜고 있는 차량들을 찾으면 된다.

출발은 6월 2일에 아동센터로 향한다고 행사 주최 측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автомобилисты собирают подарки дл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Улыбка" ко Дню защиты дет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их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автомобильных клубов Crown Club Sakhalin, Mark 2 Grandclub, Myforester Club, Hummer Club Sakhalin и "Террановоды 65" проводят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ую акцию, приуроченную ко Дню защиты детей.

Автомобилисты планируют посетить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Улыбка",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Красногорске. Там они передадут детям предметы для творчества (пластилин, фломастеры, карандаши цветные, разноцветные ленты для поделок и т.д.), развивающие игры. Кроме того, все дети получат сладкие угощения. Акция пройдет под лозунгом "Подари ребенку счастье".

Телефоны для справок: +7-924-880-40-39, +7-996-343-54-54.

Свою лепту в организацию праздника дл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Улыбки"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внести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против магазина "Аленький Цветочек", с 15 мая с 20:00 до 21:00 ежедневно. Ориентир — автомобили, стоящие с включенной аварийной сигнализацией.

Сама поездка в детский центр состоится 2 июня, сооб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акции.

사할린에서 다양한 형태의 캠프 354 개 조성된다

사할린 주 교외 아동휴양캠프의 신청서가 약 4000부 접수되었다. 그중 1850명의 사할린 유·청소년들을 위한 신청만이 승인되었다. 이번 시즌에는 '보스토크' 캠프를 재개하여 24시간 거쳐할 수 있는 6개의 캠프장이 영업한다.

올해 사할린 주에는 다양한 형태의 캠프 총354 개 전개된다. 아동 주간행사로 166개 교내 캠프장과 115개 특별 캠프장, 21개 텐트 캠프장이 시작되며 46곳은 사할린의 유·청소년의 근로와 휴식을 위한 장소이다. 올여름에는 일반학생들 총인원의 85%에 해당하는 4만 7000명이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그중 1만 6000명은 저소득층의 학생들로 이들의 휴식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예산에서는 6억4300만 루블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할린주민들의 캠프이용권 구입에 있어 특별혜택을 적용한다. 가족들은 이용권 비용의 15%만 지불하

면 된다. 예를 들어 '유빌레이느이'에서 21일간 휴양비가 4만 1885루블리면 전액 중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6252루블리 정도다.

개인적으로 구입한 휴양소 이용권의 금액에 85%를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할린 주민들은 1년에 1회만 이와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여름철 사할린의 캠프이용 평균가 추세는 3만7500루블리에 해당한다.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주어진다.

На Сахалине заработают 354 лагеря разных тип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отдых в загородных детских лагерях поступило почти 4000 заявок. Мест хватило только для 1850 юных островитян. В этом сезон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шесть лагерей с круглосуточным пребыванием, в том числе возобновит работу «Восток».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аботают 354 лагеря разных типов. Для днев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детей организуют 166 школьных и 115 профильных площадок, откроют 21 палаточный лагерь и 46 мест для труда и отдыха юных островитян.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этим летом отдохнут свыше 47 тысяч человек, что составит 85%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детей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Из них около 16 тысяч – дети, попавшие в трудную жизненную ситуацию. На эти цели из областной казны потратят более 643 млн рубле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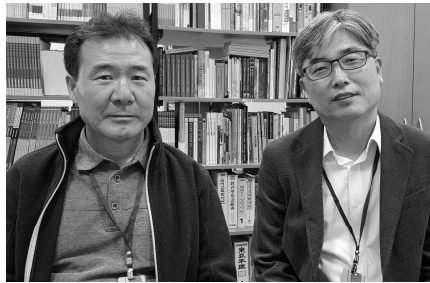
Что касается оплаты путевок в сахалинские лагеря, то здесь действует система льгот. Семьи оплачивают только 15% от стоимости. Так, если 21 день отдыха в «Юбилейном» стоит 41 тысяча 885 рублей, то из этой суммы родительская плата составит лишь 6 тысяч 252 рубля.

Предусмотрены компенсации в размере 85% и за приобретение путевок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Этой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е чаще одного раза в год. Средняя стоимость смены в островном лагере этим летом составляет 37,5 тысячи рублей. Дети, оказавшиеся в слож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имеют право на отдых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8면에 계속)

올 7-8월 서울 초등학생들 사할린 방문

지난 19일-22일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아람지역협의회 대표단 21명이 사할린을 찾았다. 대표단은 주로 북서울 초등학교 교장선생들로 구성되었다.



김민영 협회장 조태삼 사무처장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조태삼 사무처장과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아람단(아람지역협의회) 회장인 서울신북초등학교 김민영 교장과의 만나 단체소개와 방문 목적을 부탁했다.

조태삼 사무처장에 따르면 한국에는 규모가 큰 청소년단체 약 120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 청소년연맹은 가장 큰 단체로서 이 단체는 전국 시·도에 분포해 있으며 총단원은 30만 명 정도다. 청소년연맹 아래에는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등 단체들이 있다. 이번에 사할린을 아람단 회원들이 찾았다. 아람단은 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다.

김민영 협회장은 "아이들에게 일제시대 때 징용당한 동포들에 대한 녀를 기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고생한 점들을 한국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목적으로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슬픈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며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느끼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했다. 올 7-8월에는 서울 초등학교 학생들을 사할린에 보낼 예정으로 교장선생들이 사전 답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다며 동기를 설명했다.

알고보니 단체는 나라 역사를 인식시키기 위해 서울 학생들은 이미 중국을 방문한 경험도 있고 지난 3년 간은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3곳의 지역을 답사하고 시베리아 철도횡단도 둘러보았다고도 했다.

이번에는 사할린 한인역사에 관심을 갖고 문화역사 탐방지로 사할린을 선택했다.

교장단은 홈스크, 코르사코브, 한인과 관련 주요 현장(사할린동포위령비 등), <승리>기념관, 액화천연가스공장 등지를 돌아보았다.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과의 만나 앞으로 사할린 및 서울 학생 교류문제도 논의했다.

한국 측은 아픈 역사를 접한 것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러시아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이곳의 즐길 거리도 알아보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왕복비용에 있다. 사할린까지의 비용이 서울-블라디보스토크 왕복비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아직 미정사항이지만 청소년연맹에서 이번에 200여명 초·중 학생 사할린여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배순신기자)

주한인회와 사할린인문기술대학은 인하대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와 협력협약 체결

지난 21일(월) 사할린주한인회는 인하대학교 BK21 + 글로벌다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단,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와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사할린 한인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정보 공유를 비롯해 여러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과 인하대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김영수 소장이 서명했다.

이날 김영수 소장은 한민족문화교육에 필요한 자료로 주한인회 측에 4가지 김치의 모형을 전달했다. 김치와 똑같은 모형이어서 협약 체결식에 참여하는 주한인회 관계자들이 놀라기도 했다.

한편 사할린주한인회는 한국 이민사 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사할린 한인의 망향가>특별전을 준



비하는 2015년부터 인하대 아시아다문화연구소 연구가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날 인하대학교 BK21 + 글로벌다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단,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는 사할린인문기술대학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할린인문기술대학과도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자들은 양 기관의 교수 및 연구원 교류, 학술활동, 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의 공동연구, 협력사업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인하대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인천 연수구에 영주귀국한 사할린한인들을 연구하고 있다. (배순신기자)

사할린 주 향토박물관, 금요일 저녁 3500여 명 찾아

5월 18일은 국제박물관의 날이다. 이 날은 1977년부터 세계 150여 개국에서 기념하고 있다. 몇 년전부터 전국에서 이날 <박물관에서의 밤>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각 박물관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올해도 사할린의 모든 박물관들은 흥미로운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왔다.

본사 기자는 이날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을 찾아보았다.

향토박물관 앞마당에는 사할린 바르드(음유시인) 한 세르게이가 서정적 노래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박물관 내에는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여기에서는 <차도로로>박물관 게임을 하고, 사할린 주내 서식하는 나비들의 특성을 연구하고, <야생 자연에서> 우리는 야생 사람이 아니다>란 모험게임을 하고, 퀴즈의 질문에 답하고, 19세기-20세기 다리미를 구경하며 총도 조립해볼 수 있었다.

활동교실들은 다양했다. 고분자 점토로 꽃병을 만들어보고, 수채화 그림도 그리고, 일본 한자도 써보고, <세로코>클럽과 함께 춤도 출 수 있었다. 활동교육 중 하

나로 한민족 과자 만들기가 있었다. 이날 허은설현 사할린한국교육원 요리강사는 약과, 유과 매작과, 수정과 등에 대해 알려주고 만들어보기도 했다. 한민족 과자만들기 활동교실은 인기가 많아 신청한 사람보다 몇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참가자들은 교육원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한국 과자와 수정과를 맛볼 수 있었다.

이날 어린이들은 마법의 요술쟁이 공연, 비누방울 쇼, 과학쇼에 푹 빠졌다. 박물관 마당 분수 오픈식에는 펍셀 쇼도 있었다.

박물관 가이드들은 실내 투어만 아니라 재미있는 마당 투어도 실시했다.

그외 방문객들은 이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여러댄스 공연도 즐길 수 있었다. 온 가족과 함께 찾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박물관 측에 따르면 이날 박물관 행사에 3500여 명이 찾았다고 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한양대국제병원, 러시아 의료인들 협력 및 교류 활발 러시아 10여 지역 병원장들 및 장관 등 한양대병원 방문

러시아 10여 지역 병원장들 및 사할린 보건성 장관을 비롯한 의료관계자들이 한양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견학하고 학술교류 및 협력을 위해 최근 방문했다.

지난 5월 16일~17일에는 러시아 사할린 박 아렉세이 보건성 장관 및 4개 병원 원장 및 관계자들이 내원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소화기센터, 수술실, 복강경센터 등 한양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소개받았다.

이번 방문단은 향후 한양대학교병원과 응급환자 관리 방법, 수술 경험 교환, 환자 전자등록방법, 원격 화상 회의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15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야쿠츠크, 울란우데 등 10개 지역의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다.

러시아 국립 및 시립 등의 병원장 32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한양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최신장비, 병원 경영 방법 등을 소개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노발리스 TX센터 등을 투어했으며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도 소개받았다.

윤호주 병원장은 "이번 방문단들을 통해 러시아에 국내 의료서비스의 장점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양국의 의료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건뉴스)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사할린동포 어르신들과 뜻깊은 봄나들 '행복한 동행'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관장 김영진)은 지난 18일 러시아에서 영주 귀국해 화성시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과 문화지원사업 봄나들이'행복한 동행'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전곡 마리나항에서 요트체험을 즐겼다. 새로운 경험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워했다.

황○○ 어르신은 "외롭게 살아가는 사할린 동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다. 그 덕에 고향으로 돌아와 노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다"며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김영진 관장은 "대한민국 역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은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마련 해 주고자 이번 나들이를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화성=경인종합일보]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бизнес-мисс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ериод с 29 мая по 2 июня 2018 год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остоится бизнес-мисс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главе с министр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А.Успенским.

Цель бизнес-миссии – расширение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и реализация Меморандума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рпорацией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ключенного на площадке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2 сентября 2016 года.

Данная бизнес-миссия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двух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налаживанию деловых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ими и коре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В рамках указ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ланируются презентации экспортного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тречи в формате «Б2Б», посещение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ш корр.

Сахалинские главврачи во главе с министром посетили клинику Ханьянг

Делег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врачей во главе с министр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ем Пакком посетила крупнейши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Южной Кореи — Ханьянг, действующий при одноим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 Сеуле.



Визит состоялся в рамках действующего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клиник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рофильным ведомством.

Совместный документ предписывает организацию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тажиров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оведение телемедицин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и работу по друг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ахалинские врачи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выезжали в клинику, знакомясь с передовым опытом.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внедрение новых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нейрохирургии, онкологии.

В рамках последнего посещения центра сахалинские врачи заострили свое внимание на нескольк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х для заимствования.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мы здесь увидели, несильно отличается от того, что установлено в наших больницах. Но коре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ушли вперед в вопросах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логистики, организации ле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без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омех. Этот опыт интересен, тем более у нас подготовле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условия — налажен механизм архивирова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данных, созданы каналы для обмена информацией, снимками между учреждениями, — обозначил одно из направлений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и внедрения Алексей Пак.

Еще один вектор — развитие эндоскопических и лапароскопических методик на Сахалин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эти техники активно внедрены в практику крупных област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нескольких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 Преимущество таких технологий — в расширении спектра оперативных вмешательств, отсутствии разрезов тканей, быстром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ом периоде. Одними из первых в области эти методики стали применять хирурги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имени Анкудинова и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После таких вмешательств не остается шрамов, пациент выписывается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суток. В этом

году эндоскоп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будет приобретено еще для нескольки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З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лапароскопические технологии планируется внедрить во всех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ах.

Телемедицина позволяет подключить к обсуждению сложного клинического случая специалистов круп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центра. Снимки, описания из истории болезни поступают в онлайн-режиме, совместно мы можем обсудить тактику дальнейшего лечения больного.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дет на пользу всем сторонам, — высказался и.о.главного врача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А.Ширяев.

Руководи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Виктора Ли впечатлили возможности эндоскопической хирургии, эндоваскулярных методик. С открытием в учреждении хирургического корпуса, оборудованного по самым современным стандартам, здесь стало возможно внедрение любых передовых методик. Понаблюдать за организацией процесса сахалинским врачам удалось в операционной госпиталя во время реальной операции, на которую их пригласили корейские коллеги.

Сахалинские врачи не отстают от зарубежных коллег в та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ак онкоурология,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приступили к эндоваскулярным онкооперациям. До нас их никто не делал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о расти и развиваться, обмениваться мнениями, техникой нужно постоянно, — поделился главный врач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Виктор Л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клинике Ханьянг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проходит бесплатное лечение один из сахалинцев. Иностранные врачи сами выбрали его из числа островных пациентов — этот случай показался им сложным и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им по медицинским показаниям. Подоб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и в дальнейшем. Такж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а команда островных врачей для стажировки в медицинском центр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здрава.

Три конференции об истории Кореи и корейцев

18 мая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ладивосток) прошла VI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реевед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оссия и Корея в меняющемся мировом порядке — 2018»,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Центром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Эта конференци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значимых событий в научной сфере изучения Кореи. Размах выступавших был огромен — на конференцию приехали ученые из Южной Кореи, Франции, Гонконга, Китая, Казахстана, Индии. Российские ученые представляли известные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центры Владивостока,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Новосибирска, Екатеринбурга, Хабаровс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ходила в четырех секциях: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Языкознание и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 «"Новая волна"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ми докладами отметились К.В. Асмолов «Процесс над Пак Кынхе: общее с делом Объединенной прогрессивной партии», Ж.О. Баллод «Движ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РК в рамках 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а», В.С. Акуленко «Современные взгляды на этногенез корейцев в РК и КНДР», Т.Г. Троякова «Роль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ила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лия Дин с докладом «Источниковедение и историография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Красной Арм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августе-сентябре 1945 г.». Данная тема тесно связана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и освобожд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происходило в рамках еди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Красной Арм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августе 1945 г.

21 ма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гуманитар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 институте прошел научный семинар «Корейцы Сахалина: ретроспектива и перспектива». В организации семинара, помимо СахГТ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Конкук

(건국대학교), Ёнсан (영산대학교) и Инха (인하대학교),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изучения миграции и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한국연구재단). На семинаре выступили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А.Т. Кузин с докладом «Послевоенный статус корейцев, колонизированных Японией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профессор Цой Кен Ок (Университет Ёнсан) с докладом «Расследование юридического прав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на возвращение — акцент внимания н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ндидат экономических наук С.Г. Ким с докладом «Социолог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рофессора Ким Ён Сун и Пак Бон Су (Университет Инха) с докладом «Исследование тоски по родин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И. Дин с докладом «Сан-Францисс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и послевоенная судьба корейцев». Доклады вызвали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 гостей конференции и живую дискуссию.

* * *

21-22 мая в честь 100-летия Архивной службы России прошла Торжественная коллегия по архивному делу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коллегии с одним из докладов выступила Ю.И. Дин. Она представила доклад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ос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системе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работа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носящих свой вклад в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потому доклад вызвал неподдельный интерес со стороны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сахалинских архивистов

ВИКТОРИЯ БЯ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США будут стремиться, чтобы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состоялся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США Мун Чжэ Ин и Дональд Трамп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иложить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состоялся и прошёл в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срок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Ён Чхан, подводя итоги встречи между южнокорейским и американскими лидерами, состоявшейся 22 мая в Вашингтоне. Между тем, Дональд Трамп не исключил, что его встреча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Ким Чен Ыном может пройти в другие сроки, поскольку для её успеш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должны быть выполнены «определённые условия». В свою очередь, Мун Чжэ Ин назвал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 шансом избавить Пхеньян от его ядерных амбиций. Он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президент США сможет добиться свёртывания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СК, приблизить подписание договора о мир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нормализовать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Вашингтоном и Пхеньяном. Он обещал оказать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поддержку данному процессу.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не исключил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ь, что переговоры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которые ранее были отменены Пхеньяном, могут пройти после 25 мая, по завершении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Max Thunder.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начался с личной встречи Мун Чжэ Ина 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затем прошли переговоры в расширенном составе.

Чон Ый Ён: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состоится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состоится с вероятностью 99,9%. Но допускаются различные изменения в ситуации. Об этом 21 мая заявил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Чон Ый Ён, сопровождающий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в поездке в США. Он дал интервью журналистам в самолёте, направлявшемся в Вашингтон. По его словам, главной задач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саммита является не сам факт встреч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а честный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о том, как действовать дальше после этой встречи. Поэтому сначала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без участия сторонних.

В РК отметили День рождения Будды

22 мая во всех храмах РК, в том числе в главном храме Чогеса в Сеуле, прошли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Дню рождения Будды. В этот день Будде исполнилось 2562 год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в главном храме Чогеса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духовный лидер крупнейшей в РК буддийской секты Чогечжон монах Чинчжэ, главный управляющий сектой монах Сольчжон, а также около 10 тыс. буддистов. В рамках церемонии, помимо ритуалов, было озвучено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е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а также обнародован текст совместной молитвы буддистов Юга и Севера. Монах Чинчжэ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речи отметил, что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ишло время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В совместной молитве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историческая Пханмунчжом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подтвердившая принцип национальной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является сигналом о начале новой истории единой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Межкорейская команда по тхэквондо выступит в Ватикане

Объединённая команда по тхэквондо в состав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продемонстрирует своё мастерство в Ватикане. Показатель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состоится 30 мая на площади Святого Петра, и на нём ожидается присутствие Папы Римского Франциска. В составе команды – по 2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со штаб-квартирой в Сеуле 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в которую входя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Идея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принадлежит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Ватикана,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м на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в Пхёнчхане.

(RKI)

В Корее определили лучших знатоко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онкурс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был приурочен к 2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великого русского писателя И.С. Тургенева.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пресс-релизе организаторов, начиная с 2011 г.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мое Институтом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собирает в одном месте студентов русских отделений. Участники должны показать свой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а такж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общие знания про Россию и умение вести дискуссии на различные темы. Четвёртый год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т при участии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 также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мпаний "Пальдо", Samsung и др.

В этом году конкурс прошёл в три этапа и участвовали в нём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8 студентов из раз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Кореи. Конкурсанты были разделены на две группы - те, у кого опыт обучения и проживания в России составляет не более трёх семестров, и те, кто находился в РФ более длительный срок.

В полуфинале главной темой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было общее и различия в характерах русских и корейцев, а в финале надо было высказать свое мнение о природ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феномена "лишнего человека"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XIX век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группе "А" заняла Ким Юн Мин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нгюнган (Сеул), а в группе "Б" - Хван



Ён Су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Сеул).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получили различные призы, включая сертификаты на стажировку в ведущих вузах России, денежные премии и ценные подарки.

Прекрасным завершением Конкурса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ст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учеников высшей школы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Сувон. Помимо Конкурса в тот же день состоялась Книжная ярмарка, на которой студентам раздавались книги, переданные профессорами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КНДР не допустил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журналистов на ядерный полигон

Власти КНДР нарушили данное лидером Ким Чен Ыном обещание допусти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журналистов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по закрыт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ядерного полигона. Сегодня утром 22 мая в КНДР из Пекина вылете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МИ из четырех стран, включая Россию, но без южнокорейцев.

Напомним, что в ход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27 апр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ообещал презид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у, что процесс закрытия ядерного полигона в Пхунгери будет открытым. На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сотрудники СМИ из пяти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из России, Китая, США, Южной Кореи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Затем Пхеньян уведомил Сеул, что приглашает восем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епортеров - по четыре из информгентства News 1 и телеканала MBC.

В Сеуле до самого конца ждали и надеялись, что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хеньян изменит свой подход и в итоге позволи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южнокорейцам к группе иностранных СМИ, направляющихся в КНДР. Даже утром 22 мая, когда был запланирован вылет спецборта для СМИ, Южная Корея все равно попыталась направить в КНДР список журналистов для утверждения. Однако вновь без объяснения причин список не был утвержден.

В итоге южнокорейцам, которые ждали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решения, осталось наблюдать, как их коллеги из РФ, КНР, США и Великобри-

тании проходят контроль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Шоуду Пекина, регистрируясь на спецрейс Пекин - Вонсан. Борт вылетел в 9 часов утра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4 утра по Москве) и через пару часов приземлился в аэропорту Кальма Вонс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выразило сожаление в связи с действиями КНДР в отношении СМИ РК, подчеркнув, впрочем, что надеется на то, что мероприятие по ликвидации полигона пройдет согласно плану.

Отметим, что согласно озвученным Пхеньяном планам, иностранные СМИ сегодня пробудут в Вонсане, где для них организован временный пресс-центр, а завтра на поезде выедут на полигон в Пхунгери. Там 23-25 мая пройдут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одрыву входов в шахту полигона и демонтажу наземных объектов. Затем репортеров вернут в Вонсан, откуда они смогут передать материалы. Обратный вылет в Пекин состоится 26 или 27 мая.

Напомним, что СМ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 США заплатили по 10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за визу для каждого репортера. О цене визы для россиян и китайцев пока не было сообщено.

Остается только гадать, что в реальности стало причиной для отказа КНДР от своего же решения. Создается такое ощущение, что в руководстве КНДР внезапно взяли власть сторонники жесткой линии.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27 апреля

прошел в очень дру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затем КНДР сама предложила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но именно тогда последовал и резкий разворот. Пхеньян отменил переговоры, на которые Сеул успел согласиться.

Причиной недовольства КНДР стало проведение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х учений и выступление в Южной Кореи одного из перебежчиков. Однако про учения было известно заранее и тогда КНДР не поднимала вопрос о них. То же самое можно сказать и про перебежчика.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отменой переговоров КНДР стала раз за разом отклонять списк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епортеров,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были побывать на полигоне, куда их опять же пригласил Ким Чен Ын в беседе с Мун Чжэ Ином.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КНДР просто пытается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твердость накануне саммит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но выбрала для этой "демон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ую сторону. В любом случае, этот шаг качнул чашу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южан в сторону критик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Как отмечают эксперты, теоретически ост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что в последний момент южнокорейских журналистов пригласят, и заедут они через межкорейскую границу. Но все признают, что этот шанс минимален, скорее всего, демонтаж полигона пройдет без южа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476 руб. 2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Край света» пройдет с 24 по 31 августа

Первое в текущем году заседание оргкомитета кинофорума утвердило дату проведения, концепцию и схему кластера.

Концепцию восьм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рай света» представил генеральный продюсер кинофорума Алексей Агранович. Она неизменна, кинофестиваль - это не только культурное событие, но и важный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созд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собственной киноиндустрии.

Неизменным останется фестивальный кластер, который ежегодно появляется в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озле Чехов-центра. На основной площадке возле фонтана установят два шатра - один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встреч создателей фильмов со зрителями; второй шатер - для желающих узн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фильмах и гостях фестиваля, об изменениях в расписании, а также получить билеты на показы. Перед зданием Дом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явится летний кинотеатр на 600 мест и павильон для анимационной творческой мастерской.

-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Край света» стал бренд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ители и гости островной земли каждый год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ут его. Все больше желающих принима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мастерских, особенно среди подростков. И поэтому перед нами стоит важная задача учесть недоработки прошлых лет и организовать все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 подчеркну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ргкомитет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Кинопоказы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на 4 основных площадках: Чехов-центр, киноконцертные залы «Октябрь» и «Комсомолец», открытый кинотеатр. Конкурсную программу игровых фильмов составят восемь-девять полнометражных картин, созда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и в странах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не ранее 2017 года, которые будут оценивать компетентное жюри.

В 2018 году в рамках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рай света» пройдет работа 4 творческих мастерских: «Острова»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Студия анимации «ДА», г.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Кинолаборатория для подростков, Творческая мастерская «Большая история» и Мастерская урбанистики «Сделай сам».

Помимо конкурсных работ, зрителям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внеконкурсные программы: анимация для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фестивальные хиты, игровые и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фильмы о спорте.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строят жильё по нулевой ипотеке

Для помощи в решении квартирного вопроса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было создано Сахалин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которого – формирование рынка доступного жилья. Одно из направлений его работы – программа кредито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на более выгодных, чем в банках условиях.

Напомним, для ряда льготны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ет нулевая ипотека. Жител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ипотечный заем под ноль процентов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жизнен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Главное и единственное условие – иметь постоянную островную регистрацию. Средства 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как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квартиры в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м доме, так и на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ладимир Прокопенко из Курильска строит дом своими руками. Шесть комнат, большая кухня-столовая, несколько вспомогательных помещений. За все материалы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доставку их на Итуруп заплачено 4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которые курильчанину выдали под ноль процен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м ипотечном агентстве.

- Мы всё посчитали сами, затем предоставили эти расчеты, обосновали, что нам нужна такая сумма, - говорит Владимир. - Нам выдали. Всё, что мы просили. Это хороший шанс, чтобы улучшить своё жилищное положение. Ежемесячно по ипотеке мы платим около 30 тысяч рублей. Сумма вполне подъемная – работаем оба: я и супруга. И подобные условия действуют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Кроме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ья на Итурупе начали возведение 4-х арендных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Квадратные метры в них курильчане также с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по программе нулевой ипотеки.

Сахалинские автолюбители вдвое сократят расходы на личный транспорт, переведя машину на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Регион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и газ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ирует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о приеме документов на компенсацию затрат по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ю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для работы на газомо-

торном топливе от жителей населения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областного порядка по компенсации затрат на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е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для работы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были учтены предложения граждан об увеличении возраста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подпадающего под действие порядка. Идя навстречу пожеланиям островитян, предельный срок эксплуатации для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я автомобиля увеличен с 15 до 20 лет, а компенсационные выплаты автолюбителям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овышены с 50 до 70 процентов. Кроме того, льготным категориям граждан они возмещаются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но не более 105 тысяч рублей.

В случае перевода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на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для автовладельцев снижается в два раза.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е в партнерском центре позволя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лучить топливную карту на 2 тысячи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газомоторного топлива в подарок, а цена самого топлива в 3 раза ниж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бензина. Важным эффектом от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я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является снижение выбросов и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воздуха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кументы на компенсацию затрат принимает отдел газификации и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и департамента город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 адресу: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оспект Мира, 64-а, кабинет 106, телефон 300-584 (добавочный 1).

Население Анив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и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также сможет получить компенсацию по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ю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для работы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Поправками в бюдже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2018 год выделены средства на эту поддержку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Эти меры направлены на автотранспорт, который регулярно посещае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правляться на АГНКС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местными администрациями разрабатываются муниципальные порядк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данных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выплат. Планируемый срок начала приема документов от населения в указанных районах – 3 квартал 2018 года.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компенсации затрат на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е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для работы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рассчитаны на 2018-2020 годы.

Задачу о переводе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для улучшен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постави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Более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я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на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для юридических и физических лиц размещен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и газ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зделе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http://aepg.sakhalin.gov.ru/gazomotornoe/>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и Кирилло-Методиевские чт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организова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и Курильской епархи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и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В этом году форум был посвящен 25-летию со дня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и Курильской епархии.

С открытием конференции участников поздра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ладислав И.

- 25 лет со дня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и Курильской епархии – знаменательная дата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истории это срок небольшой, однако за эти четверть века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пришлось пройти большой и сложный путь в регионе, где не было ни одного храма и священнослужителя, до становления активной духовной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Кирилло-Методиевские чтения - очень удачный яркий пример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церкви, государства и общества.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началом форума, плодотворной работы! - сказал Владислав И.

Программа чтений стартовала с двух конкурсов: один из них - фотоконкурс «Православие моими глазами», второй - конкурс сочинений на тему «Вера в жизни человека». В этом году значительно изменен формат секций форума. Все они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виде круглых столов. Всего было проведено четыре секции, три из которых были размещены в корпусе СахГУ, другая, посвященная 25-летию епархии, развернулась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Чтения собрали священнослужител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ласти, учрежде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Участвовали в конференци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цы, прибыли на нее и гост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Одна из них - Анастасия Абрамова, вице-президент РОО «Семейный клуб родительского опыта «РОЖДЕСТВО», кандидат 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Сахалин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посадки леса

Сто пятьдесят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школьников,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ласти высадили две тысячи молодых лиственниц вдоль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ы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Кроме лиственниц пригородный лес пополнился саженцами пихты, кедра, клена и рябины.

Ежегодно весной в нашей стране отмечаетс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посадки леса, направленный, прежде всего,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гражданской позиции и воспитание береж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лесным богатствам. По традиции его проводят акцией посадки деревьев в лесном фонде,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и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Сегодня, благодаря ак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посадки леса», рядом со школой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появилась новая зеленая зона. В ак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150 волонтеров, большая часть — школьники. Некоторые ни разу не сажали деревья, но научились это делать. Главное — желание, а инструктаж по посадке деревьев для них провели опытные в этом вопросе специалисты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Три подруги – Настя Колесник, Олеся Тактеева и Таисия Желтова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ысаживают на склонах сопки, между беговыми дорожками, молодые пихтовые побеги.

- Хотим, чтобы было красиво, а лесов становилось больше, - наперебой говорят юные спортсменки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о том, почему они сюда пришли. - Воздух в городе станет чище, мы не будем дышать пылью, нам будет приятнее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наши результаты вырастут и мы станем чемпионками.

Озеленению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деляетс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овые березовые, рябиновые, кленовые аллеи высаживают в разных уголках острова при этом не только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 леса, но и облагораживают территори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Ежегодно появляется тысяча гектаров молодого леса.

- Благодаря нашей сегодняшней работе город станет более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м и комфортным для населения,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 Приятно видеть, в числе любителей природы, сахалинцев от мала до велика: школьников, спортсменов,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и просто неравнодушных людей.

Высадка деревьев в рамках акции идёт сверх ежегодного плана сезонного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составляющег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8 году свыше 4 тысяч гектаров. Мероприятие не однодневное, в другие дни и на других участках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ысадки саженцев, агротехнические действия по уходу за посевами в лесных питомниках и улучшению плодородия почвы в посевных отделениях.

На самом деле, по словам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р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Владимира Корнева, площади дл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ысадок деревьев и кустарников по области надо еще поискать. В области хорошее естественное возобновление лесов. Сахалинцы любят свой край, окружающую их природу, заботятся о ней и никогда не пропускают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её охране.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ют на публичные слушания по проекту отчета об исполнени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за 2017 год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29 мая в 14.00 в Большом за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9.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бсуждении проекта отчета об исполнении глав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документ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В ходе слушаний выступ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тем начнется обсуждение предложений и вопросов, поступивших от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в устной и письменной форме.

Прямая трансляция слушаний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в эфире местных телеканалов «ОТВ-Сахалин» и «ОТВ-Домашний», а такж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о адресу: <https://www.youtube.com/watch?v=ZsB7hJrohWc>.

Вопросы и предложения к публичным слушаниям можно задать уже сейчас на форуме портала «Открытый бюджет»: <https://openbudget.sakhminfin.ru/forum/index.php?topic=359.new#new>. Также их можно направлять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ob@sakhminfin.ru.

Участие граждан в обсуждении проекта отчета об исполнени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роизводи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рядком подготовки и проведения публичных слушаний по проектам зак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на очередной финансовый год и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и об исполнени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за отчетный финансовый год, утвержденным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24.10.2016 №531.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министерст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산업부, 모스크바 크로쿠스 엑스포서 한류박람회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함께 주최, 국내외 450개 사 참가 대성황 이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윤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는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모스크바 크로쿠스 엑스포에서 '2018 모스크바 한류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류박람회는 한류마케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소비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종합 수출박람회로, 2010년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올해로 13회째 개최하고 있다.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정확히 1개월 앞두고 열린 이번 박람회는 현지 젊은 층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중소기업 마케팅

팅에 연계해 화장품, 패션의류 등 우리 유망 소비재의 신 북방시장에서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국내외 450개사(국내 100, 바이어 350)와 참관객 만여 명이 찾아 대성황을 이뤘다.

박덕철 산업부 무역진흥과장은 "남북 관계의 해빙 분위기로 남북방 정책 추진에 새로운 전환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신북방지역의 핵심 지역 최초로 대규모 산업-문화 연계 행사가 개최된 의미가 크다"며 "이번 2018 모스크바 한류박람회 개최가 우리 소비재 수출 시장의 다변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6월 월드컵, 7월 이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모스크바 크로쿠스 엑스포에서 '2018 모스크바 한류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지 참관객들이 전시장에 전시된 우리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프롬까지 올해 한-러 양국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러시아의 심장부이자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인 모스크바에서 산업과 문화를 융합한 신북방지역 최초

의 한류 박람회가 개최돼 의미가 크다"며, "우리 기업은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한류와 연계한 마케팅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각시켜, 한-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FTA에 앞서 현지시장 선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달다]

스승과 제자 이야기

스승과 제자라는 말은 선생님과 학생에 비해서 무게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서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종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돌이켜 볼 때 한 명씩이라도 찾아뵙는 선생님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물론 그런 버릇을 들여놓지 않아서 끈이 다 끊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과의 인연도 소중하게 이어야 하겠습니다.

<스승>은 어떤 존재일까요? 스승은 늘 내 이야기 속에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에는 책을 쓸 때 사실 이게 내 이야기인지 선생님의 이야기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스승은 내 속에 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스승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스승이라는 말은 원래 무당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의사(醫師)도 무당이었습니다. 의사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찾아보면 무당이라는 뜻도 나옵니다. 원래 의라는 한자의 아랫부분에는 무(巫)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巫)라는 한자의 뜻을 찾아봐도 의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는 선생님 이면서 의사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스승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치료할까요?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찾아보면 알 만한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죠. 그건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좋은 질문은 본인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풀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학문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왕도 무당이었습니다. 신라의 왕 중에 '남해 차차웅(次次雄)'이라고 있습니다. 차차웅은 신라에서 마립간(麻立干)이나 이사금(尼師今)과 마찬가지로 왕을 의미하는데 '자충(慈充)'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차차웅과 자충은 무당의 의미였습니다. 당시의 무(巫)는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에서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존재이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차차웅이나 자충의 발음을 오늘날의 발음으로 바꾸어 보면 스승과 닮아있어 흥미롭습니다.

무당(巫堂)은 물론 사람입니다. 우연이지만 <문다>라는 말과 발음도 비슷하네요. 무당이 점치는 것을 <무꾸리>라고 합니다. 무꾸리의 어원은 문다와 관련이 됩니다. 사람의 물음을 신에게 전달하고 신의 목소리를 인간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의 목소리는 진리일 겁니다. 희랍에서는 신탁(神託)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신탁이 유명한 신탁이지요. 그렇게 보면 스승은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신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간다는 스스로를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간다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한편 요즘 시대에는 스승이 없는 시대라는 말도 합니다. 도대체 스승이 안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스승은 찾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전에도 스승을 찾기 위한 노력은 처절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경우는 더욱 열심이었습니다.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고 마침내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부처의 깨달음에는 그동안 찾아다녔던 스승의 말씀도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의 스승을 완성이라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자신만이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위험한 스승인 셈입니다. 다른 좋은 스승도 찾아보아야 합니다.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닌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좋은 스승이 되어야겠습니다. 늘 스승과 제자를 찾아야겠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벌써 행복해 집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Развлечения

море и пляж Хеундэ, обзорная экскурсия по Пусану и сити-квест по культурной деревне Камчхон, аквапарк и музей науки,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и корейские игры, К-POP марафон, викторины и дискотеки

Обучение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ИСАА при МГУ,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этикету и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мастерские по националь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Кореи

Смены

1 смена: 30.06 - 06.07

2 смена: 07.07 - 13.07

3 смена: 14.07 - 20.07

4 смена: 21.07 - 27.07

5 смена: 28.07 - 03.08

6 смена: 04.08 - 10.08

7 смена: 11.08 - 17.08

ВОЗРАСТ ДЕТЕЙ: 12-18 ЛЕТ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А САЙТЕ:

www.pusan-leto.com
pusan.let@gmail.com
тел.: +82 10 6312 8191
тел.: +82 10 5964 0584



SIGMADE
ART STUDIO

러시안
주니어
어학원

**'아브로라' 항공사,
<2018년 항공서비스>
국제포럼에서 금상 수상**

항공기 내 서비스 향상을 위한 <2018년 항공 서비스>제 3회 국제포럼에 '아에로플로트'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아브로라' 항공사가 참가했다.

'2018년 항공 서비스' 포럼 행사장에는19개 항공사들의 승무원들이 ISPY인증프로그램에 따른 연수에 참가했다. 특히, 스카이숍 안내서 목록에 오른 유명상표 회사들의 주관으로 활동교실이 진행되었다.

포럼의 일환으로 구성된ISPY (올해 기내 판매의 인물) 인증프로그램에 따른 승무원 훈련 결과 아브로라 항공사가 <진열창 구성>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아브로라' 항공사 승무원 중 예브게니야 파라소와는 <우수 판매원>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럼을 주최한 '아에로마르' 비공식 조직이 상품을 수여했다.

«Аврора»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о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оруме SkyService 2018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входящая в группу компаний «Аэрофлот»,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III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оруме SkyService 2018, посвященном развитию сервисных услуг на бортах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На площадке форума SkyService 2018 состоялось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ое обучение бортпроводников 19 авиакомпаний по программе ISPY, в частности, проведение мастер-классов от брендов торговых марок,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в каталоге SKY SHOP.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тренингов бортпроводников по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ой программе ISPY (Infight Sales Person of the Year),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о в номинации «Организация витрины».

Среди бортпроводников в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лучшей в номинации «Лидер продаж» признана Евгения Тарасова. Ей был вручен приз от организатора форума ЗАО «АэроМар».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 -15.00

Юбилеи,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133
тел.: 49-84-02

реклама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еда.сах.ком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